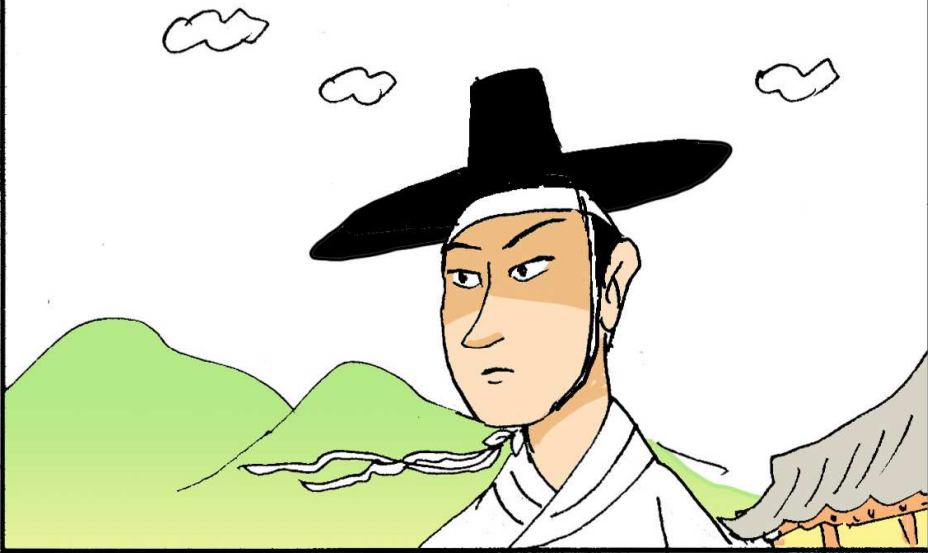


37. 제자의 의견도 수용(58세)

- 성균관 대사성인 퇴계가 26살 연하의 기대승을 만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대하여 8년 간 학문을 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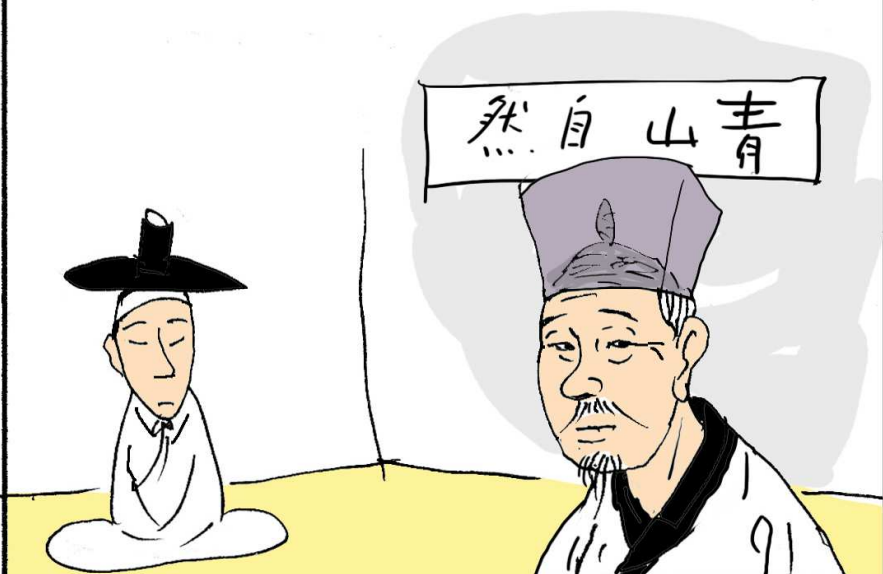
광주에 기대승이란 젊은 선비가 있었는데 어린시절에 이미 수학, 육갑, 오행성식의 이치에 정통하였다고 한다.



1549년(명종 4) 사마시, 1551년 알성시에 합격했으나, 준의 조카라는 사실을 안 당시의 시험관 윤원형의 방해로 낙방했다.



1558년 문과에 응시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던 도중 전라도 장성을 들러 해서 김인후를 만나 태극도설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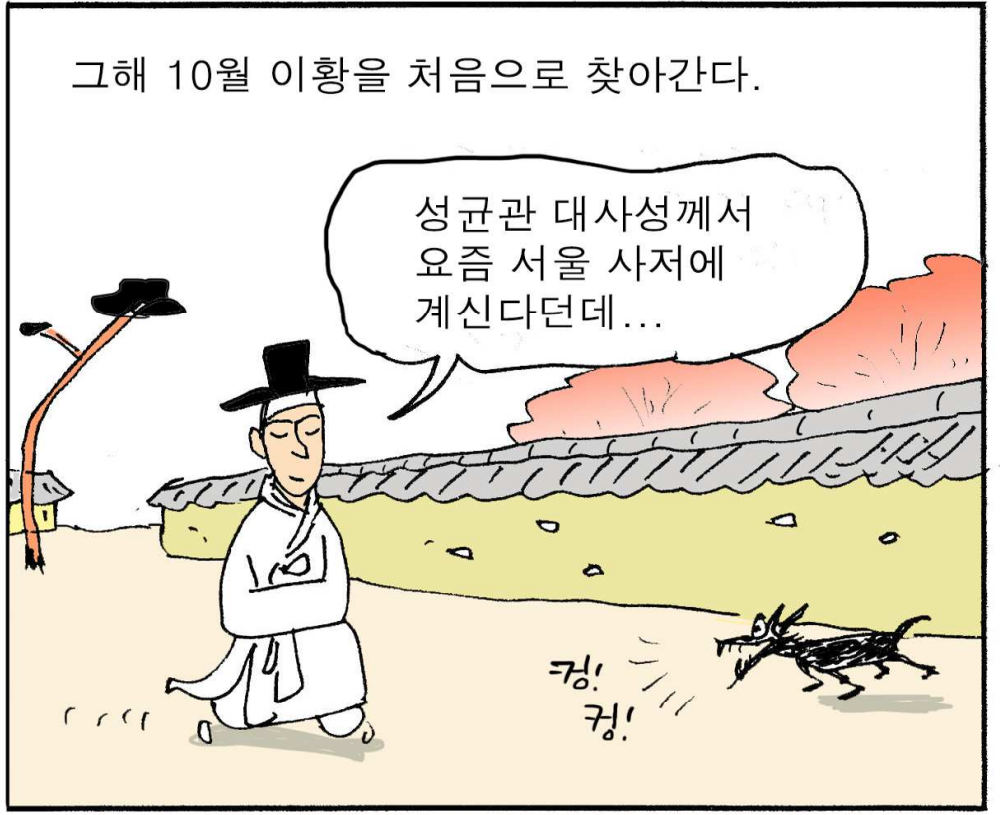
태인에 와서는 일재 이항을 만나 정지운의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얻어 보았다.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었다.



그해 10월 이황을 처음으로 찾아간다.



이번에 승문원에서 정자를 보좌하는 일을 맡은 기대승입니다.

敬



승문원에 제법 쓸만한 젊은이가 들어왔다 하더니 찾아와 고맙구려.



부끄럽습니다. 실은 일전에 우연히 천명도설이란 책을 접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고자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정지운의 천명도설이란 책을 내가 감수해 준 일이 있었답니다.



감수하신 내용 중에 사단四端은 이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七情은 기氣가 발한 것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혹 읽은 내용에 대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해 보세요.

사단과 칠정은 모두가 하나의 감정이나 감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이란 이와 기가 합해져서 생긴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四端 : 맹자가 실천도덕의 근간으로 삼은 네 가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마음

선악시비를 판별하는 마음

칠정七情 : 외부 사물에 접하면 정이 표현되는 일곱 가지 감정

즐거움

화남

슬픔

좋아함

두려움

미워함

욕심부림



그런데 어떻게 어떤 정은
이가 발한 것이고 어떤 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기는 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이에서만 발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사단이 발했다는 것은 순수한 이가
드러난 것이므로 선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인데 사단은 이로
칠정은 기로 분리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노학자와 26세 어린 젊은 선비와의
첫 만남은 이렇게 불꽃 튀는 논쟁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며
대립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기대승은 당대 최고의 석학인
퇴계가 공들여 수정한 천명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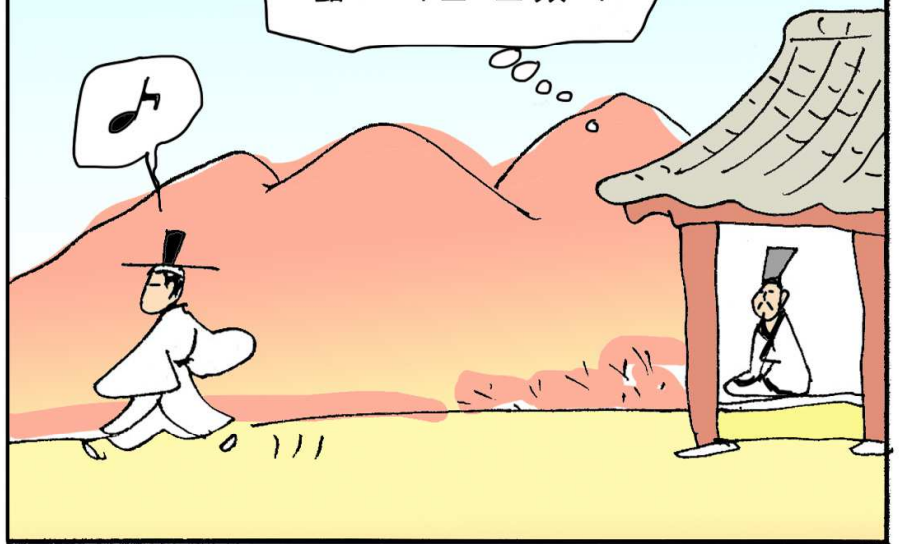
노학자 퇴계는 자신의 견해를 기꺼이 수정했다.

이와 기를 분리한 것은 내가 옳지 못하였소. 앞으로도 이견이 있으면 편지로 주고 받기로 합시다.



이렇게 기대승은 돌아갔는데

모처럼 영특한 젊은이를 만났다.



대사성인 내게 아무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는데 처음 본 젊은 선비가 반론을 제기하다니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젊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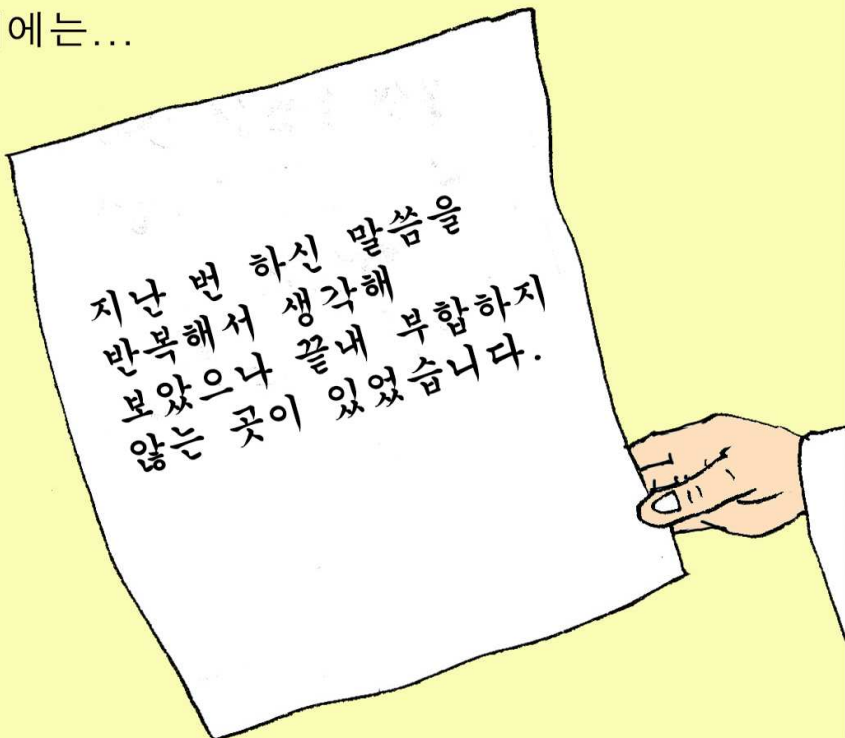


1559년 8월, 퇴계의 편지를 받은 기대승의 첫 번째 서신이 왔다.



편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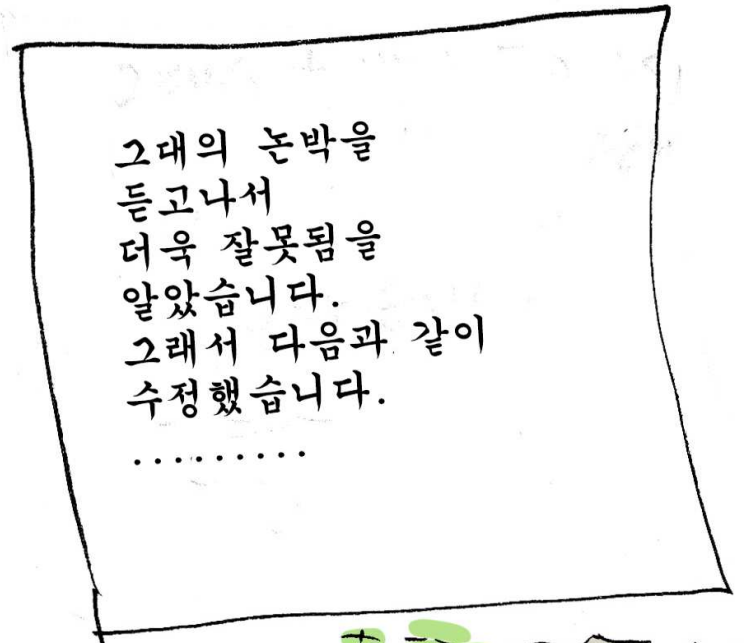
지난 번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으나 끝내 부합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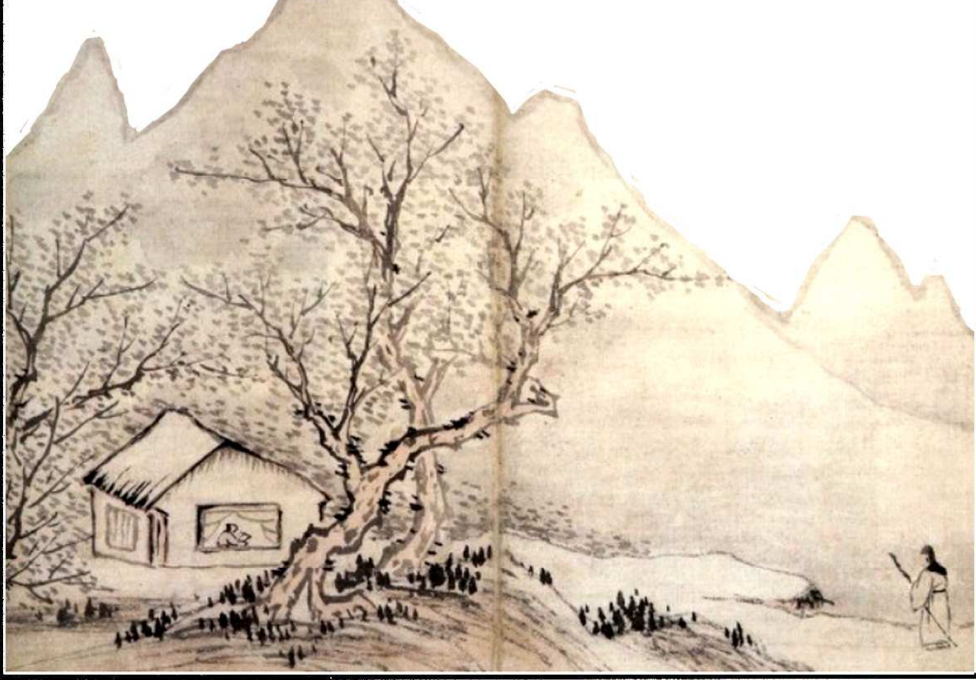
이에 퇴계가 답장하기를...

그대의 논박을 듣고 나서 더욱 잘못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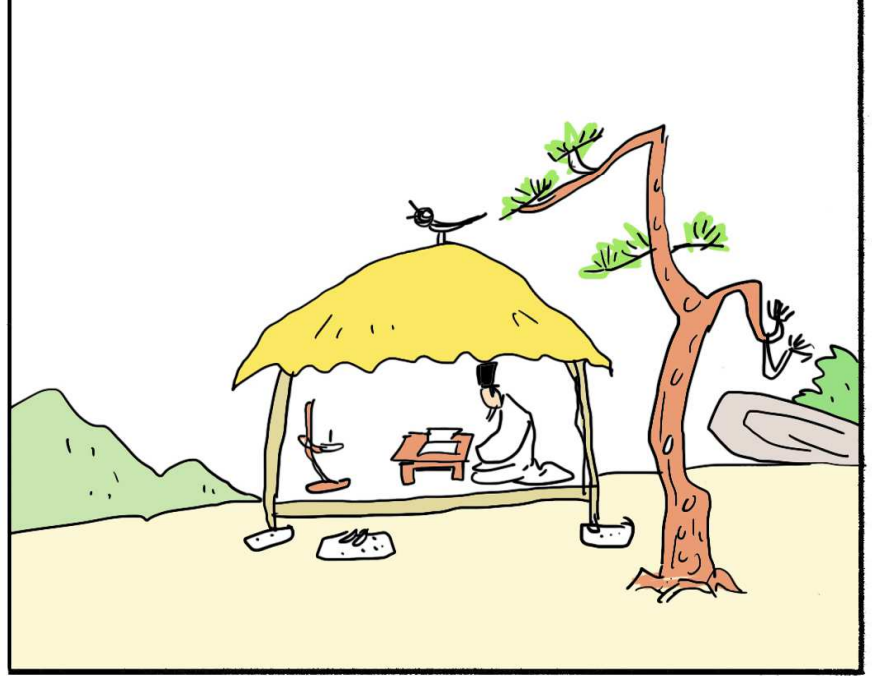
.....



이렇듯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은 그 후
8년 간에 걸쳐 서신을 교환하며 논쟁을 벌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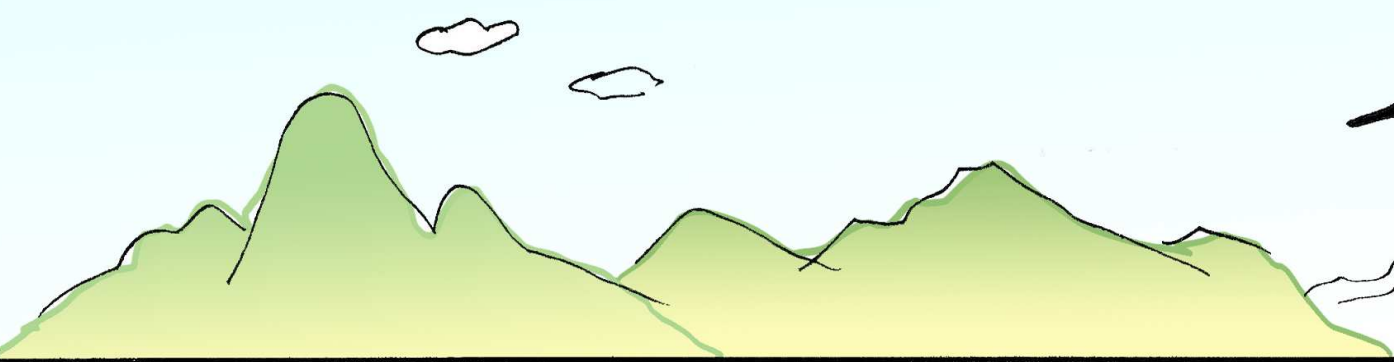


그동안 오고 간 편지만 117통에
달하였다.



처음 만나면서부터 견문이
좁은 제가 박식한 그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평생을 우러르며 그리워했는데
함께 논하고픈 생각이 구름처럼
쌓이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이 고개를 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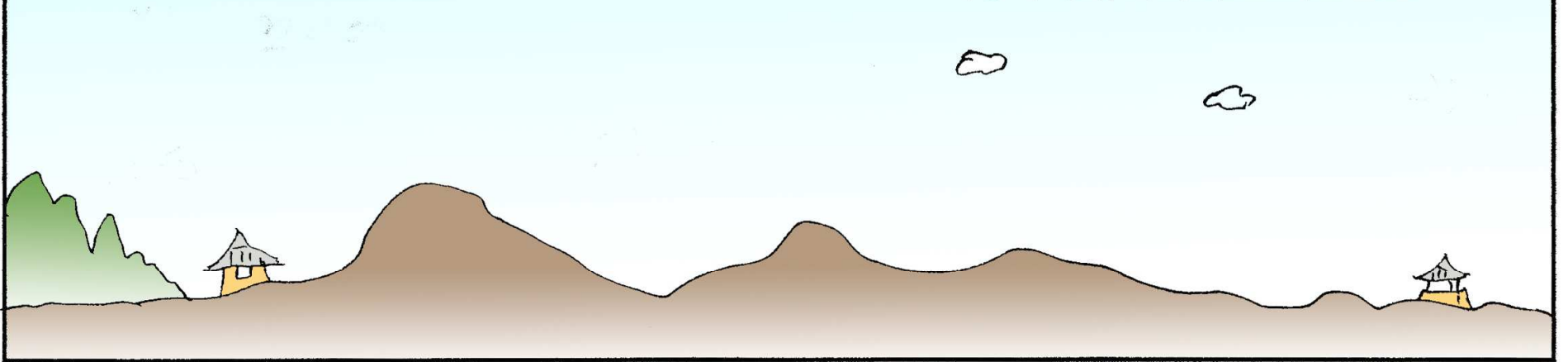


퇴계 이황은 지금의 국립대 총장격인 성균관
대사성이었다. 그리고 고봉 기대승은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청년



이렇게 해서 영남의 퇴계와 호남의 고봉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8년에 걸친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인간 감정의 양상인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선악의 계기를 검토했던 이 논쟁은 한국 사상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도 인간적 겸허함을 잃지 않았던 이들의 자세는 후학들에게 소중한 귀감을 보여주었다.

이理

기氣

1569년 3월 퇴계가 은퇴하고 안동으로 남향할 때 선조가 물었다.

지금 나라 안의 학자 가운데 누가 으뜸이오?



이때 퇴계는 주저없이 기대승을 천거한다.

기대승은 학식이 깊어 유학에 통달했으니 그와 견줄 자가 드물 것으로 사료됩니다.



1570년 11월 17일 임종을 앞둔 퇴계는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고봉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

“삼가 어려운 시절에 더욱 몸을 아끼고 학문적 성취를 게을리 말아, 시대의 소망에 부응하기 바라네...”

선생님!

